

국어학에서 살펴 본 월명 향가의 특성

김완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삼국유사의 문면

글의 첫머리부터 한문 원문으로 새까맣게 도배질하는 것이 민망하여 번역문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월명(月明)이라는 승려와 그가 지었다는 향가 두 편에 대한 정보는 『삼국유사』 권제5 감통(感通) 제7의 「월명사도술가」 조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향가의 향찰 부분 아닌 일반 기사에도 실은 해석이 어려운 곳,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다음에 제시된 번역문은 리가원, 허경진 두 분에 의한 것(1996)이다. 향가 부분을 필자의 것(현대어역)으로 채워준 데 대한 보답으로 그리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¹⁾

월명사의 <도술가>

경덕왕 19년 경자(庚子, 760) 4월 1일에 두 태양이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일관(日官)이,

1) 李家源을 '리가원'으로 적는 것은 선생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다.

“인연이 있는 중을 청해 산화(散花)공덕을 드리면 그 재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a) 그래서 조원전(朝元殿)에 불단을 깨끗이 차리고, 왕이 친히 청양루(靑陽樓)에 나가 인연이 있는 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때 월명사(月明師)가 긴 발두둑 (b) 남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왔다. 그에게 단을 열고 기도문을 짓게 하자, 월명이 아뢰었다.

“신은 원래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향가(鄕歌)만 알 뿐이지, 범패(梵唄)에는 익숙지 못합니다.”

왕이 말했다.

“이미 인연이 있는 중으로 뽑혔으니, 비록 향가를 불러도 좋다.”

월명이 이에 도술가를 지어 바쳤는데, 그 사(詞)는 이러하다.

오늘 이에 산화(散花) 불러
 숫아나게 한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命)에 부리워져
 미륵좌주(彌勒座主) 피서 나립(羅立)하라.

이 노래를 풀이하면 이렇다.

오늘 용루에서 산화가를 불러
 푸른 그림에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내네,
 은근하고도 정중한 곧은 마음이 시킨 일이니
 멀리 도술천의 부처를 맞으리라.

지금 세상에서는 이 노래를 <산화가>라고 하지만 잘못이다. <도술가>라고 해야 마땅하다. <산화가>는 따로 있지만, 글이 길어 신지 않는다.

<도술가>를 지어 바친 뒤에 얼마 안되어 태양의 궤변이 사라졌으므로,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좋은 차 한 봉과 수정염주 108개를 주었다. 이 때 갑자기 깨끗한 모습의 동자 하나가 차와 구슬을 꿇어 앉아 받들고 궁전 서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나왔다. 월명은 이 동자가 궤내의 사자인 줄로 알았고, 왕은 월명사의 종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의 징표가 나타나고 보니 (c), 둘 다 아니었다. 왕이 매우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뒤를 쫓게 했더니, 동

자는 내원탑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차와 염주만 남쪽 벽화 미륵상 앞에 있었다. 이 일로 해서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미륵보살을 이같이 감동시켰음을 알게 되었다. 조정과 민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자, 왕이 더욱 그를 공경했다. 다시 비단 100필을 주어 큰 정성을 표시했다.

월명이 또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서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 했는데, 갑자기 모진 바람이 불어 지전(紙錢)을 날려 서쪽으로 없어지게 했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은 늘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살면서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 밤에 피리를 불며 문 앞의 한길을 지나가자, 달이 그를 위해 그 자리에 멈췄다. 그래서 그 길 이름을 월명리(月明里)라고 했다. 월명사도 역시 이 때문에 이름나게 되었다. 월명사는 능준대사(能俊大師)의 문인이다.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한 지는 오래 되었으니, 향가는 대개 《시경》의 송(頌) 같은 종류였다. 그러므로 이따금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찬한다.

바람이 지전을 날려 세상 떠나는, 누이의 노잣돈으로 쓰게 하고
 피리 소리가 밝은 달을 흔들며 향아가 발길을 멈췄네.
 도술천이 하늘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마오.
 만덕화도 한 곡조에 맞아 들였다오.

인용한 번역문 중간 중간에 (a) (b) (c)가 어설피게 보이는 것은 지금의 필자가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것들을 삽입해 넣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의 한문 원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필자의 발견이 아니라 선배들이 이미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고민하기도 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홍기문(1990[1956]: 277)이 정리한 의견의 제시에서부터 출발하자.²⁾

- ① ‘奏’자 아래 ‘云’자 또는 ‘曰’자가 누락되어 있다.
- ② ‘時’자는 잘못 덧들어간 것이다.
- ③ ‘玄’자는 아마 ‘互’자의 오자일 것이다.

첫째는 ‘日官奏 請緣僧 … 운운’에서 ‘奏’자 아래 ‘云’이나 ‘曰’이 들어 가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야 ‘월명이 아뢰었다’에 해당하는 원문이 ‘明奏云’으로 되어 있는 것과 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겠다. 그런데 실은 이에 앞서 소창진평(小倉進平, 1929 : 207)이 주해에서 ‘日官 奏하여 曰’(원문 일어)이라 표현한 것이 있어 이에 영향 받아 성립된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 두 분을 제외하고는 역사 쪽에서나 어학 쪽에서나 글자 보충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달리 있는 것 같지 않다.

둘째는 리가원 선생이 ‘이때 월명사가 긴 발두둑 남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라고 번역한 원문, ‘時有月明師行于阡陌時之南路’[시유월명사행우천맥시지남로]에서의 둘째 ‘時’자가 문맥상 빠져야 한다는 것이 홍기문의 의견인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여러 의견들이 난립한다. 리가원 선생도 각주를 붙여 “이 부분의 원문은 ‘행우천맥시지남로’인데 ‘시(時)’자를 번역하기가 어색하다. ‘사(寺)’자로 보면 ‘천맥사의 남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자연스럽게 번역되지만, 그런 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 하고 있다.

‘때 시(時)가 아닌 ‘절 사(寺)로 아주 원문 표기를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2) 필자의 a, b, c에 해당.

써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 양주동 선생이다. 1942년의 초판에서부터 1965년의 증보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寺)를 지킨 것이다. 판본에서 ‘時’자 모양이 時有(시유)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천맥’ 다음의 것은 꼭 ‘寺’를 먼저 쓰고 왼쪽 비좁은 공간에 ‘日’(일)을 붙여 쓴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寺’(사)로의 결단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조선사학회의 활자본은 ‘천맥시지’ 녀자에 방선(傍線)을 가하여 주의를 요하는 곳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소창 박사는 그 위험을 피하려는 듯 ‘때에 월명사 천맥의 사이(間)를 지났다.’ 해 놓았는데 ‘時’를 ‘間’의 잘못이라 보았는지까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기에 ‘…之南(지남)’을 덧붙일 수 없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둘째 ‘時’를 몰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寺’를 바꾸어 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 주목된다.

하정룡(2003 : 621)은 ‘활자본 가운데는 ‘寺’로 교정한 것도 있지만, 원문 그대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므로 그대로 둔다’라는 각주를 붙여 ‘時’를 살린채 이런 번역을 보인다.

이 때에 월명사가 발독길로 가는데 마침 절의 남쪽 길이었다.

천맥(阡陌)을 단순한 ‘두둑’ 등으로 해석하지 않고 ‘길’을 붙인 것에 호감이 간다. ‘천맥’ 또는 ‘맥천’이라 했을 때에는 전지(田地)에 뚫린 동서와 남북의 길을 의미하겠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가는데’ 다음에 단순한 ‘남쪽 길로 갔다’를 기대했는데, 의외로 ‘절’이 다시 등장하는데 당혹한다. 필자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겠다.

아직도 필자는 ‘천맥’과 ‘시’가 어울려 한 단어가 될 것에 미련을 가지는데, 김준영 선생이 의문부호를 붙이며 겸손하게 지시했던 時(치)자를 부각시켜보고 싶은 것이다.³⁾

3) 김준영 1979 : 144-5.

번역은 매우 평범하게 ‘때마침 월명사가 발두둑의 남쪽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라 하여 원문의 ‘時’자를 도외시한 듯 하면서도, 정작 한문 원문의 제시에 있어서는 ‘천맥’ 다음에 (時?)時를 보게 된다. 아마도 時(時?)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치’라고 읽히는 이 글자는 ‘토신을 제사지내는 곳’, ‘천지신명을 제사지내는 곳’을 뜻한다. 따라서 ‘천맥’이 불사(佛寺)의 이름이 되어 ‘천맥사’가 되는 것은 어색한 일이지만, 전지(田地)의 길들이 교차되는 곳에 위치한 민속 신당의 이름, 그것도 고유명사 아닌 보통명사로서의 존재 이겠는데, 물론 ‘時’를 ‘時(치)의 오자로 보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대방(大方)의 일고를 기다린다 할 자리다.

셋째 과정은 리가원 선생이 ‘그러나 신의 징표가 나타나고 보니, 둘다 아니었다.’라고 번역한 ‘及玄微而俱非’(급현징이구비)의 ‘玄’(현)에 관한 것이다. 이 해석은 이병도 선생이 ‘玄’(현)을 ‘현묘한’이라 한 것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홍기문은 玄(현)이 互(호)의 오자일 것을 생각했던 것이나, 하정룡(2003 : 622)은 그것을 이체자(異體字)라 단정하고 있다. 이체자에 관한 언급이 이 책에는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일본 학계의 성과를 반영한 것들이 아닌가 여겨진다. 홍기문 이외의 향가 연구자들은 대개 이 부분들에 대한 인용이나 번역을 생략하고 있어 특별한 발언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체자란 본래 같은 글자이면서 모양을 달리한다는 뜻인데, 문자학자들은 혹 와자(譌字)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또 본체자에 대하여 속(체)자, 약자 등의 용어도 자주 목격되는 것들이다.

필자는 향가의 해독에 있어서의 원전비판(原典批判 textual criticism)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선배 학자들도 이미 오자의 추정과 교정의 전례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유별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경계의식이 남달라 보였는지 모른다. 옛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록된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 기록을 액면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계명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필자의 향가 본문의 정오(訂誤) 작업을 평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접한 일이 있다. 삼국유사의 한문 본문은 정확하여 착오가 없

는데, 왜 유독 향가 부분에만 오자들이 나온다고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서 논한 (a) (b) (c)의 경우는 자못 교훈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삼국유사(내지 삼국사기)에 대한 오랜 교감 작업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의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향찰로 된 향가 부분에 대해서 까지 일반 국사학자 또는 서지학자의 힘이 닿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향가 해독의 관점에 돌아와 말한다면, 해독자들 사이의 견해가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든지, 견해차가 현격하다든지 할 때에 혹 원문에서의 근원적인 하자가 있거나 없을까 반성할 여지는 항상 유보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도술가의 해독

도술가는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다른 노래들에서는 볼 수 없는 해시(解詩)가 이 노래에는 붙어 있기 때문이다.⁴⁾ 해독의 세계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은 가히 천군만마의 존재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저 샹폴리옹의 로제타 스톤 해독에 있어서도 희랍어 번역의 병치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을 상기할 일이다.

소창진평이 저서가 보현십원가를 앞세우고 삼국유사 소재분을 뒤로 돌린 것은 앞의 것이 시대적으로도 가까운 것이려니와 거기에는 모두 역시(譯詩)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반면 그와 반대되는 나열 방식을 택한 양주동식 태도는 다분히 문학사적 관점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겠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제망매가까지를 포함하여 월명사의 향찰 표기는 그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그 투명성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우리의 귀납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하게 되는 말이지만, 표기의 기본 격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월’(月)자는 불교와 인연이

4) 그 내용은 앞의 장에서 보인 리가원 선생의 번역을 참조하기 바란다.

깊은 글자로 ‘월명’하면 필자에게는 근세의 선사 ‘월면’(月面)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다만 그것은 법명(法名)이고 법호(法號)는 만공(滿空), 그러나 월명의 경우는 유사의 기술로 보아 법명 아닌 별호일 가능성이 높다.

자의적인 태도라 나무랄지 모르지만 도술가의 원문에 필자 자신의 해독과 해석(현대어역)을 늘어놓고 그 뒤에 선배 세 분의 해독을 첨부하여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원문:

今日此矣散花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해독:

오늘 이에 散花 불더
보보솔본 고자 너는,
고든 믹스미 命스 브리이악
彌勒座主 모리셔 벌라.

해석:

오늘 이에 散花 불러
솟어나게 한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워져
彌勒座主 되셔 羅立하라.

소창진평:

오늘 이에 散花(를) 불너
베푸숨은 꽃이여 너는

고든 믈슴의 命을 바려
彌勒座主 되셔러라

양주동:

오늘 이에 散花 불러
쌌솔본 고자 너는
고든 믈스미 命入 브리읍디
彌勒座主 되셔라

홍기문:

오늘 이리 散花 불러
쌌 호스본 고자 너는
고든 마스미 명으로 브리아디
미룩좌주 모셔라⁵⁾

첫째 줄은 그만그만한 가운데, 별 문제가 없는 곳이고, 둘째 줄 머리의 동사 어간이 ‘베푸’, ‘쌌’로 동요하다가 김준영 선생이 착안한 ‘보보’가 해시의 뜻에도 맞아 필자도 거기 찬동하면서, 다만 ‘巴’를 왜 ‘보’라 읽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좀 색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신방언(新方言)이라는 책에 이르기를 ‘지금 양주 등지에서는 ’불‘을 뜻하는 ’輔‘자를 ’巴‘처럼 쓴다.’ 한 것을 보고 이 독법의 유래를 삼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 뒤 남풍현 교수의 논문(1985)을 보고 과연하고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 ‘包’자의 단계적 변이에 의해 ‘巴’가 성립되었다는 논리는 충분한 자료에 바탕을 둔 훌륭한 견해로 찬양하고 싶다.

근래에 와서 유창균(1994)에서 제기되고 강길운(1995)이 찬동한 ‘돌보’는 훈주음종(訓主音從)의 기본틀에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되나, 해

5) 1980년의 줄저에서 이분의 해독을 권외에 두었던 경위에 대하여는 2003년의 줄고를 참조.

시의 내용과의 괴리가 있고 하여 앞으로 더 논의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의 분의 경우, 둘째 줄 끝에 있는 ‘花良’을 ‘花郎’이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무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상정하고 있는 장면이 딴 사람들 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흥기문 씨의 해독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눈을 끄는 것은 ‘命叱’을 ‘명으로’라 읽고 있는 자리일 것이다. 대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 독법은 ‘叱’을 ‘르’로도 읽는 그의 특이한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출발에서 문제가 있고, 또 ‘고든 마스민 명으로 브리아다’라 읽어 가지고는 그의 ‘의역’에서의 ‘참다운 마음의 시키는 그대로’가 보장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이 노래의 해독에 관한 한, 그의 이해는 무애의 테두리에서 별로 벗어난 것이 없다 해야 할 것이나, 그의 연구가 출간된 것이 1956년의 일이고 보면, 그것으로 흠을 삼을 일은 물론 아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은 필자가 새 의견을 제법 많이 개진한 곳이다. 사람들이 곤경을 치르게 된 첫 난관은 ‘使以’의 ‘以’를 타동사 ‘브리다’의 어간 말모임으로 잡고 앞의 ‘命’을 그 지배하에 있는 목적어로 인식한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꽃이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린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브리다’의 뜻을 ‘받들다’로 전환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뜻을 거의 정반대로 바꾸어 놓은 것이 되고 만다.

필자는 문제의 ‘以’를 ‘브리’가 아니라 그 피동형 ‘브리아다’의 ‘이’를 표시하는데 쓰인 것이며 ‘命叱’은 의미상으로 주어가 되는 여격으로 이해하였다. 한문 표현의 ‘所使’는 전형적인 피동 의미 표시의 양식이어서 이 해독과 합치된다고 보았다.

넷째 줄 끝의 ‘陪立羅良’의 ‘羅良’은 전체가 한 어미로 인식되었던 것인데 단순히 ‘라’라 하면 글자가 하나 남고 있는 대로 ‘라라’라 읽으면 형태론적 뒷받침을 받기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무애 선생의 ‘뢰’는 근세의 형태고 명령형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였다. 해결책은 알고 보면 간단, ‘羅’를 혼독하여 ‘벌라’를 얻는데 있었다. ‘벌’은 자동사 어간이다.

‘모리셔’의 모리는 ‘외’의 선행 형태, 보현십원가에서의 ‘濼理’를 ‘마즈리’, ‘외시리’ 등으로 읽던 것을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형태다.

3. 제망매가의 해독

한때는 향가 해독의 표본으로 곧잘 제시하였던 것이기도 하였으나, 근년 들어 필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노래가 되고 말았다. 우선 앞의 장에서의 같은 수순을 밟고 나서 문제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자.⁶⁾

원문: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陁剌良逢乎吾
 道修叱良待是古如

해독:

生死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몰다 니르고 가느뉘고

6) 다만 흥기문 씨의 경우를 이번에는 생략한다. 그리 특징적인 데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7월 이른 바람에
이에 더에 뿌러질 님곶,
흐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론더.
아야 彌陲刹아 맛보올 나
道 닷가 기드리고다.

해석:

生死 길은
예 있을때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몰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陲刹에서 만날 나
道 닷아 기다리겠노라.

소창진평:

生死길은
이에 잇아때 저히고
나는 간다(홀) 말스도
몰으다 일으고 가닛고
어너 7월 일흔 바람에
이에 더에 떠딜 님(히)여
한 무리는 가지에 나고
가는 곧(을) 몰으온덩

阿也 彌陁刹에 맞나온 나(는)
道(를) 닷가 기다리고다

양주동:

生死路는
예 이사매 저히고
나는 가는다 말스도
묻다 닛고 가느닛고
어느 ㄱ술 이른 브르매
이에 저에 떠딜 닛다이
흐든 가재 나고
가논곧 모드온더
아으 彌陁刹에 맞보올 내
道닷가 기드리고다

소창진평의 해독에서는 현대어형의 혼재 등 어설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월명사 특유의 투명한 표기 덕택에 큰 테두리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후배 해독자들의 성과와의 거리가 가장 좁은 경우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양주동에 와서 매우 말끔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고 ‘흐든’의 정립과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확인되지만, ‘저히고’(次勝伊遭)의 계승이 있다는 점에서 두 분을 제1기의 해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⁷⁾

두 분의 해독과 비교했을 때 필자의 그것도 문제의 네 글자를 ‘머뭇그리고’라 달리 읽은 것을 제외하고는 음운 및 형태 차원에서의 조정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자평할 수 있겠다. 이런 일종의 무난함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필자의 해독을 고등학교 교재에 실릴 수 있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저히고’에 대한 반발은 지현영(1947)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즈홀이고’⁸⁾

7) 이 점에서는 홍기문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8) 김준영은 ‘즈홀이고’이거니와 후에 유창균에서 다시 부활

서재극(1974)의 ‘멈호리건’ 그리고 그 쌍생아격인 필자의 ‘머뭇그리고’까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김선기(1967-1975, 뒤에 1993)의 ‘마이자깅이고’까지 끼어 있어 그야말로 백화난판, 보는 사람이 갈피를 잡기 힘들다.⁹⁾ 앞으로 어떤 신묘한 풀이가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는 자리라 해 두자.

이 장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이 평이해 보이는 노래 때문에 고민에 싸여 있다는 뜻을 피로한 바 있다. 소창진평이라는 거목이 드리운 그늘이 너무나 깊어 해독자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에 시달린다. 연전에 크고 작은 글들을 모아 낸 책이 있다.¹⁰⁾ 거기에 ‘제망매가와 정토사상’ 및 ‘향가에 대한 두어 가지 생각’이라는 두 편의 글이 들어 있는데, 앞의 것은 장황하면서도 덜 익어 부끄러운 것이요, 뒤의 것 끝에서는 좀더 반추한 내용을 선뎌 것으로 생각한다.

제망매가의 끝의 줄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에서의 주어는 월명사인데, 것처럼 고덕한 스님이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거기에 먼저가 있으면서 아직도 道를 닦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겠는가. 정토를 찾아드는 중생들은 불보살의 마중을 받는다는 ‘친영의’라는 개념도 있지 않는가. 힘이 부쳐 허우적거리며 찾아드는 가련한 누이를 위하여 ‘길’을 닦아 나간다는 것이 더 아름다운 정경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지현영 선생이 ‘길을’이라고 읽은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것은 아직 치졸한 일장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극락왕생(極樂往生)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던가. 왕생담의 주인공들은 가령 비천한 육면의 경우에서도 보듯, 일순에 몸을 솟구쳐 여인이면 그 여신(女身)을 버리며 즉시 서천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아직 살아서 누이동생을 위하여 채를 올리고 있는 월명사가 누이보다 앞서 극락에 가 있을 수는 없다.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월명이 아니라 그 누이라야만 한다.

이제 제망매가 문면의 끝 부분을 다시 보자. ‘逢乎吾’의 ‘나’에는 조사가

9) 김선기 선생에게서는 迷○○○ 다섯 자의 풀이

10) 향가와 고려가요, 2000.

붙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소창진평은 ‘나(논)’이라 하고 양주동은 ‘내’라고 함으로서 ‘기드리고다’가 나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를 포함하여 ‘나’에 주격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것을 주어로 하여 ‘기다리겠노라’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소창진평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가 된다.

‘나’(吾)를 목적어로 하였을 때, ‘기드리고다’의 ‘고다’는 더 이상 ‘겠노라’가 될 수는 없다. ‘기다리렀다’와 같은 당위성의 어미가 오기에 적합한 자리가 되는 것이겠다.

일찍이 양주동 선생(1965 : 272-274)은 제망매가의 ‘고다’는 원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안민가의 두 ‘고다’에는 그런 뜻이 없고 단순히 장연(將然) 당연(當然)의 의미만을 가진다 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세 경우 모두를 한 범주에 묶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세어에서 이에 필적하는 문증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방언형의 관찰 쪽에 막연하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 자세히 보니 안민가의 한쪽 ‘知古如’에 대하여 소창진평이 분명 ‘알지어다’의 뜻인 ‘sirunare’라 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쪽은 평범한 평서법으로 하고 있는데, 귀납이 아닌 직관에 의지하였던 것 같다.

이상은 불교의 한 이념인 극락왕생의 축으로부터 연역하여 문맥과 형태에 대한 반성까지를 시도해 보인 것인데, 향가와 같은 제한되고 잘 알려진 자료를 가지고도 탐구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의외의 과제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필자로서는 망외의 소득이라 할 것이다.¹¹⁾

9·10행에 대한 현재의 견해 :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길 닦아 기다리렀다.

11) 무에 선생에게는 ‘고다’와 ‘고라’의 관계 등에 대한 특유의 설명이 있으나, 지금은 거기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참 고 논 제*

- 리가원·허경진 번역(1996), 『삼국유사』 한양출판.
- 홍기문(김지용 해제)(1990), 『향가해석』 여강출판사(원래는 1956년 평양 출판).
- 소창진평(小倉進平, Ogura Shimpei, 1929), 『향가 및 이두의 연구』(일본), 경성제국대학.
- 양주동(1942),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 양주동(1965), 『증보고가연구』 일조각.
- 금서룡(今西龍) 편(1929), 『삼국유사』 활자본 재판(초판 1928) 조선사학회.
- 최남선 편(1946), 『증보삼국유사』 민중서관.
- 윤영옥 편(1981), 『한국고시가』(자료편) 학문사.
- 하정룡(2003), 『교감역주 삼국유사』 시공사.
- 하정룡, 이근직(1997), 『<삼국유사> 교감연구』 신서원.
- 김준영(1979),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 이병도(1956), 『역주병원문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 김완진(1978), 『향가 본문의 정오를 위하여』 관악어문 3.(1979에 재수)
- 김완진(1979),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완진(2003), 홍기문의 『향가해석』 한국어연구 1, 한국어연구회.
- 남풍현(1985), 차자표기법의 ‘ㄱ’자에 대하여, 『역사언어학』 전예원.
-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 강길운(1995),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 지현영(1947),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 서재극(1974), 신라향가의 어휘연구.(학위논문)
- 김선기(1967-1975), 향가의 새로운 풀이, 현대 문학연재.
- 김선기(1993), 옛적 노래의 새 풀이, 보성문화사.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 본문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